

01 교회소식

사랑으로 충만한 새해 맞아

주의 종 직원 헌신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사랑을 실천할 것을 결단했다.

02 생명의 말씀

빛나는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영광이 크게 나타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예비하실 것이다.

03 인터뷰

“아동, 학생주일학교 기대됩니다”

새로 취임한 아동주일학교 김현진 교장, 학생주일학교 이재정 교장과 함께 새해 비전과 청사진을 그려본다.

04 간증

빛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 사랑으로 해외 손님을 섬기는 강인옥 권사와 진정한 사역의 의미를 깨달은 스리랑카 마노가란 목사 간증.

# 만민뉴스

제616호 2014년 1월 1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헌신의 아름다운 향으로 새해 첫 주를 시작

### 2014 주의 종 · 직원 헌신예배 드려



2014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에서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사진 1)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번 헌신예배는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 전체와 교회에서 근무하는 레위족, 그 외에 장로, 권사, 집사, 권찰 등 교회 직원들이 함께 특송을 하며(사진 2, 3)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는 영적 장수가 되고자 다시 한 번 결단하는 계기가 됐다(사진 4).

지난 1월 5일, 주일 저녁예배 시 약 8,800명의 주의 종과 직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감을 되새겼다.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과 교회 직원, 장로, 권사, 집사, 권찰 등 직분자들은 대표자 특송 이후 한 목소리로 '성결의 복음, 권능의 역사'를 외치며 '만민이여 외치자'를 특송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진정한 사랑'(마 22:37~40)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서는 첫째,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는지 둘째, 목자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셋째, 진정 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헌신자 전체가 옛사람의 육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근본의 소리로 신속하게 변화돼 성결의 일꾼으로 나오기를 축원했다.

한편, 헌신자들은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제단의 사명자로 세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하며, 더욱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 새롭게 출발하는 아동주일학교 · 학생주일학교

만민의 미래가 자라는 곳, 아동주일학교와 학생주일학교에 교장이 새로 취임했다. 아동주일학교는 김현진 교육전도사, 학생주일학교는 이재정 교육전도사이다. 어느새 교사와 학생들도 하나 돼 2014년 새해 시작부터 은혜가 넘친다.

교사들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가득한 교장을 통해 아동과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배우며,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며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학생주일학교 교사연합회 총무 유신우 집사는 "이전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목자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교장 선생님을 통해 발전기가 가동돼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행복하고 충만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동과 학생들의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 학생 토요일안양예배가 부흥해 가는 등 행복한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2)

# 빛나는 성전

로 온 영을 이뤄 주님을 볼 때까지 흠 없게 자신을 보존한 성도들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 온 집에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11절에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습니다. 요한은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귀한 보석 같다고 표현했지요.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털을 수북하게 쌓아 놓은 곳에 빛을 비쳤을 때 얼마나 찬란한 빛이 나겠습니까. 이처럼 눈부시게 빛을 내는 새 예루살렘은 온 영의 마음을 이룬 이들의 처소라 했지요. 우리가 온 영의 마음에 가까울수록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가까이 이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 영의 평준화라는 기준에 가까울수록 ‘빛나는 성전’ 건축이 가까이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 2. ‘빛나는 성전’의 의미

첫째, 앞으로 건축할 대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 하시고 상세하게 그 규모와 양식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중 일부만 설명하면 대성전은 열두 개의 큰 기둥이 맨 바깥을 두르게 됩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기초석을 본 딴 것이지요.

큰 기둥들의 재료는 우윳빛 나는 밝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기둥의 맨 위에는 다섯 꽃잎을 가진 꽃들을 조각해 장식할 것입니다. 다섯 꽃잎은 ‘오중복음’을 통해 온 영을 이룬 성도를 의미하며, 온 영이 나올 때마다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 꽃밭에 다섯 꽃잎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 다섯 꽃잎 가운데 보석이 박혀 있지요. 만일 새 예루살렘에 갈 사람이 100명이 나오면 100송이가 피어나고 천 명이 나오면 천 송이가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꽃잎의 의미를 알려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목자의 공간 안에서 너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새 예루살렘에 오면 이런 영광이

있단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여 년 전, 이 다섯 꽃잎이 대성전의 열두 기둥에 새겨질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꽃의 중심부에는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에 해당하는 보석들로 장식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피어나는 다섯 꽃잎의 꽃을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에 조각된 꽃들에 벽옥을 시작으로 열두 번째 기둥의 꽃들에 자정까지 꽃술처럼 보석으로 장식하게 되지요. 이 보석 장식들이 조명을 받으면 오색찬란한 광채를 발합니다. 열두 보석으로 장식된 다섯 꽃잎과 열두 기둥의 웅장한 모습은 그 자체로도 새 예루살렘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여기에 오로라 빛까지 더해지면 대성전의 전경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대성전의 문도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진주 문을 본떠서 만듭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계 21:12) 한 대로 대성전에도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열두 개 문을 만들지요. 이 열두 문은 굉장히 크며 문마다 문의 높이만큼 큰 천사를 조각하게 됩니다. 대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양식대로 건축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대성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게 됩니다. 대성전은 영의 공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육의 공간에 나타내는 기념물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대성전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 경작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영광 온 영을 이룬 성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마음, 온 영의 마음을 이룰수록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대성전 열두 기둥에 새 예루살렘 열두 기초석으로 장식한 다섯 꽃잎을 새긴다고 말씀드렸지요. 대성전은 것처럼 빛을 내는 보석들로 곳곳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성전을 보실 때에 가장 빛나는 보석은 바로 ‘온 영을 이룬 참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마음의 향을 발하며 보석보다 아름다운 빛을 내는 성도들이 진정 ‘빛나는 성전’이지요.

보석함에 가득 담긴 보석들이 찬란히 빛을 발하면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가 되도록 지금까지 영의 흐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한 보석함에 해당하는 ‘대성전’ 건물도 빛나는 성전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길 보석에 해당하는 성도들도 최상의 보석으로 세공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나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에 담긴 영적 의미를 되새기며 보석같은 마음을 이뤄야 하지요. 열두 보석(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들은 특별한 영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팔복’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영적인 사랑’(고전 13장)이 열두 보석 안에 다 담겨 있지요. 따라서 이 열두 보석의 마음을 종합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됩니다(『천국』(하) 책자 참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성도가 최고의 보석으로 세공되고 있으며, 보석함과 같은 대성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건축할 수 있도록 세계 정세나 모든 주변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 건축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니 영광 온 영의 마음을 이루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는 성전의 주역으로 놀라운 영광 중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친히 예비하신 성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성스럽게 예비됐는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신랑,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곳에 거할 성도들의 마음에 꼭 맞게 단장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까요? 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사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침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렬히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함께 꿈꾸며, 기도 마음도 믿음도 재능도 쑥쑥 키워나가요”

Q. 주일학교 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정 교장** 저는 어머니의 투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웠던 학창시절에 주님의 사랑과 성도님들, 선생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빛을 갖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던 저는 남몰래 어려운 학생에게 몇 년간 작은 정성을 전달해 왔지요. 한때는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용 교재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고 생각하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김현진 교장**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천국으로 이끄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 눈물이 흘렀지요.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영혼’이라는 관계가 형성돼 신앙 패턴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고 만민의 영혼으로 마음에 품으니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Q. 2014년 학생, 아동주일학교 비전은 무엇인가요?

**이재정 교장** 학생들은 물론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 대부분이 믿음의 반석에 서는 것입니다. 이는 영의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운 첫 번째 뜻대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영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영의 믿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고 자라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비전을 품을 것이고요. 더불어 저와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이 목자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보살필 것입니다. 이로써 부흥은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김현진 교장** 저는 만민 안에서 유치부, 초, 중, 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만민 제단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고, 당회장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심겨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이 당회장님의 눈물의 기도로 자라나 결국 영의 열매로 나올 수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영



만민의 꿈이 있는 곳, 아동주일학교와 학생주일학교가 새로운 교장을 맞아 힘찬 새해를 시작했다. 교장 김현진 교육전도사(왼쪽)와 이재정 교육전도사를 만민뉴스 취재팀이 만났다.

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마음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려고 합니다. 저와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이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눈물과 기도로 씨앗을 심어 준다면, 훗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열매로 나오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Q.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인지요?

**이재정 교장** 학생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1대 1로 만나 사귀는 것만으로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더라도 누군가의 강요로 만나게 한다면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깊은 사귀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찾고 만날 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길이 주님 안에서 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이 먼저 이런 만남과 사귀는 것만으로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교장으로서는 더욱 본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교장** ‘예배 회복’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세상과 구별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의 영적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이 금식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Q. 학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재정 교장** ‘가르침’보다는 우선 ‘체온이 담긴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가 진리를 몰라서 행하지 못할 때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긴 알지만 힘이 부족해서 행하지 못할 때는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을 심어 주는 가장 확실한 매체는 ‘가르침’보다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이라고요.

당회장님께서 미니 은사집회 때 해 주신 모든 말씀과 주신 선물에 담긴 것은 바로 배려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체온이 담긴 사랑이었지요. 이런 따뜻함을 전해 주신다면 하나

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것입니다.

**김현진 교장** 황금 열매를 맺는 씨앗이 담긴 화분을 누군가 선물했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애지중지 공들여 화분에 물을 주고 햇빛도 주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바로 자녀들이 황금열매를 맺는 화분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나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와 사랑을 통해 자녀들이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귀한 열매로 나올 것입니다.

Q. 학생과 아동에게 각각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재정 교장** 사랑하는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선교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시고기 아빠(알죠??)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할 때도 행복하고 조금 못 할 때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 품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두가 목자 곁을 든든히 지켜야 합니다. 이 안에서 함께 꿈꾸며 기도 마음도 믿음도 재능도 쑥쑥 키워나가요.

**김현진 교장** 사랑하는 아동주일학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새하얀 스케치북과 같아요. 때가 묻지도, 더럽혀지지도, 구겨지지도 않은 흰 스케치북처럼 새하얀 마음이에요. 앞으로 교장님과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흰 스케치북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예쁘게 그려가요. 검정색 크레파스가 아닌 오로라의 아름다운 오색 빛깔 크레파스로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을 품고 그려가요.

<p>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014.1.12-1.18</p> <p>謹賀新年</p> <p>한 해 동안 지씨엔 방송을 성원해 주시고 사랑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p> <p>January</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창조의 역사</li> <li>• 사랑 1 • 3차 영혼육 14</li> <li>• 믿음을 착량하시니 11-15</li> <li>• 요한일서 강해 31-35</li> <li>• 일곱교회 21-25</li> <li>• 창세기 강해 31-35, 105</li> <li>• 우리 삶의 등불 3-5</li> </ul>	<p>GCN TV 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결과 충성 (이수진 목사)</li> <li>• 기도 (이미영 목사)</li> <li>• 영의 세계 7 (이희선 목사)</li> <li>• 생명수 14 (신동초 목사)</li> <li>• 선한 지혜 (정구영 목사)</li> <li>•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관규 장로)</li> <li>• 참된 사랑을 위해 2 (정리라 교육전도사)</li> </ul>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1-12</li> <li>• 찬양드려요 12</li> <li>•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2</li> <li>• 향기12 • English 6</li> <li>• 플로리스트 11-12</li> <li>• 아름다운 예배 6</li> <li>• GCN 금요찬양 스페셜 23-25, 27, 4</li> </ul>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스토니아연합성회 2</li> </ul>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p> <p>1577-2073</p> <p>GCN 방송</p>
--	--	--	--	--

1988년 봄 어느 날, 지인이 건네준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에 감동받아 눈물로 읽었습니다. 저는 간증의 주인공인 이재록 목사님께서 사무하시는 만민중앙교회를 찾아 금요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읊기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 깊이 있게 풀어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지요.

얼마 후, 당회장님께서 저희 집에 심방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기도받은 즉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더니 제 고집과 시기, 질투 등을 태우는 꿈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꿈속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내가 도착같이

오리라.’는 음성을 세 번 들었습니다.

그해 7월, 저는 만민중앙교회 금요일예배에 참석해 등록했지요. 당시 매우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 등록 후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일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영혼들을 가족처럼 돌아보며 주의 일에 충성하니 우수 기관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1994년 12월, 남편이 노름과 경마 등을 끊지 못하고 가출했을 때에도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특히 회원들 중 홀로 된 분이나 남편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제 간증을 하며 위로해 주었고, 회원들의 기도제목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해 주며 가족처럼 돌보았지요.

그러나 1996년에는 조원이 75%나 부흥해 선교회 우수 조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5년 만에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지금은 주일마다 휠체어 봉사를 하며 기관장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 “내 인생의 참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마노가란 라자 목사  
(스리랑카 콜롬보 목회자협의회 회장)



저는 1990년 3월, 기독교 복음집회에 참석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앓아온 피부질환을 치료받았지요. 이 일

은 제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되어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2007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소재한 립본 호텔에서 열린 목회자 모임에 참석해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의 사역을 알게 됐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자료로 듣고 보며 영적인 충격을 받은 저는 이때부터 사역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후 콜롬보 만민교회 니산 쿠레이 목사님과 교제하며,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된 ‘길태식 목사 초청 스리랑카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길 목사가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았지요. 4년 전 만민 지교회로 가입한 후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저는 만민중앙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 당회장님의 겸손한 모습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 그것을 본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스러웠지요.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교회 창립 31주년 축하공연을 통해 천국을 깊이 있게 알게 돼 매우 행복했지요.

저는 이재록 목사님을 참 목회자로 확신하며, 만민의 사역을 스리랑카에 널리 전파할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 “해외에서 온 성도들의 숙소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강인옥 권사 (2대대 14교구, 58세)



남편 김삼손 집사님은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짓곤 합니다.

저는 7년 전부터 선교사 숙소를 찾아 오신 해외 선교사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책임자로 일해왔습니다. 숙소 관리는 물론, 간식이나 밑반찬 등을 챙겨 드렸지요. 선교사 숙소가 늘어나면 권사회와 장로님들이 찬조해 주신 가재도구 및 물품들로 숙소를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일곱 군데에 숙소가 마련돼 있어 찾아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지요.

우리 교회는 당회장님의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와 권능의 사역을 통해 전 세계 1만

여 자협력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문서 선교와 방송 설교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만민의 사역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그분들을 섬기는 일은 제게 참으로 귀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남편 김삼손 집사님도 기쁨으로 가재도구 운반과 장 보는 일을 함께 도와주요. 각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출국한 후 숙소 담당 권사님들과 함께 이불 빨래며 청소를 하면서 저희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손님들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해져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

족처럼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 챙겨 드렸을 때 주님 사랑을 느끼며 당회장님께 감사해하는 것을 보며 보람도 느꼈지요. 또한 이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저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에 대한 당회장님의 각별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서 기쁨으로 섬겼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수상하게 됐습니다. 귀한 사명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168(부암1동) ☎070-8223-4914, 010-96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 2길 제3동 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8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